



World EXPO 2030  
BUSA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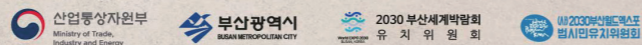
#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 함 이기보까?



손흥민, BTS, 오징어게임에 이어 부산이 대한민국을 띄워보겠습니다  
치열하게 유치경쟁 중인 세계 유력도시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를 이기고  
지구촌 3대이벤트를 대한민국이 완성할 수 있도록- 부산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량이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부산 유치해”를 외쳐주세요!**

유치 예상효과	개최기간 2030. 5월~10월	개최장소 부산북항일원	참가규모 약 200개국 5,050만명	경제적 파급 효과 61조원	일자리창출 50만명
---------	----------------------	----------------	-------------------------	-------------------	---------------



부산체육  
2021 DECEMBER VOL. 39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VOL. 39**  
2021 DECEMBER

#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 영광의 주역

유도 안영환 원로 인터뷰

### 스포츠 플러스

아이스하키

### 스포츠 이야기 Y

조용히 깊이 있게  
마음을 사로잡는  
매너의 스포츠, 골프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 More Deeply

- 04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유도회 심의위원장 안영한 원로
- 08 노력의 땀방울**  
부산광역시 수영구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 12 학교체육 탐구생활**  
2019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 여중부 1위  
이사벨중학교 배구스포츠클럽
- 16 함께하는 생활체육**  
2017년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클럽대항전 종합 1위  
현주핀수영클럽
- 20 특별기획**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을  
찾아간 우수선수, 히어로가 되다!



## More Broadly

- 24 스페셜 리포트**  
미래를 바라보면서 적절한 규모의  
신축 경기장을 만들어야
- 28 스포츠 in 과학**  
올바른 스포츠윤리교육이 유소년에게 필요한 이유
- 32 구·군체육회를 가다**  
금정구체육회
- 36 이슈 앤 포커스**  
- 제32회 부산시민체육대회 개최  
- 2021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실시

## More Pleasantly

- 40 스포츠 플러스**  
동계올림픽경기대회의 꽃  
아이스하키
- 44 스포츠 이야기 Y**  
조용히 깊이 있게 마음을 사로잡는  
매너의 스포츠, 골프
- 48 키워드가 있는 건강상식**  
운동과 음식 조절로  
심혈관계 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겨울나기 하세요!

## More Closely

- 50 BSC 뉴스**
- 51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 52 부산의 체육 관련학과·대학원 소식**
- 54 구·군체육회**
- 56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북구국민체육센터  
- 영도국민체육센터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부산실내빙상장
- 58 회원종목단체**



발행일 2021년 12월 21일(월간, 비매품, 통권 제39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김동준  
 편집·취재 성기환,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김지환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기획·디자인 디자인대훈(T. 051-898-0330)

  **Instagram**  
 인스타그램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최고의 경지에서 최선의 유도를 하다

부산광역시유도회 심의위원장 안영환 원로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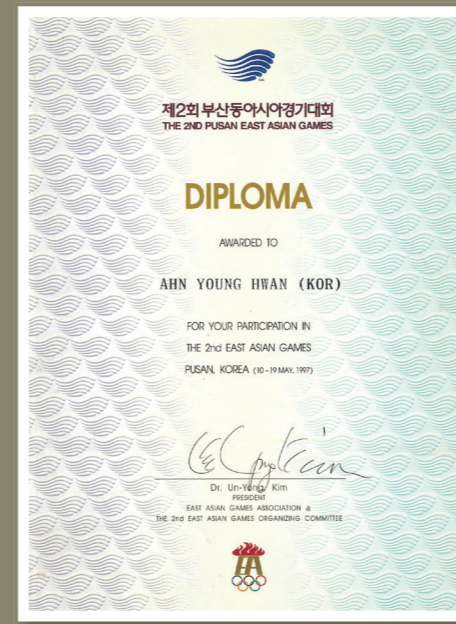
▲ 유도 9단 승단(2012)

사회가 혼란했던 시절, 왜소한 체격을 극복하고 심신(心身)을 단련하기 위해 유도를 시작했다는 안영환 원로. 그 후 34년간 봉직하며 평생 유도를 업(業)으로 삼고 교직과 심판 활동에 매진해왔다. 부산 유도인으로서 처음 9단 반열에 올라 큰 화제가 되기도 했던 안영환 원로의 삶을 들여다 보았다.



# Judo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



▲ 제2회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 심판(1997)

안영환 원로를 만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한 양정모 종합실내훈련장을 찾았다. 훈련장 1층에서는 안영환 원로와 부산광역시유도회 신특성 화장의 지도 아래 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지만 유도를 향한 노력과 열정까지 막을 수 없었다.

“개인 연습도 중요하지만 단체 훈련을 통해 유도인들이 교류도 하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크기 정신을 기르고, 단합력도 키울 수 있죠.”

유도는 시합장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를 하고, 경기 전·후에 상대선수에게 인사를 할 만큼 예(禮)를 중요하게 여긴다. 예를 중요시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며, 이 태도에서 페어플레이(Fair play) 정신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신체를 단련하고, 자기 몸을 보호하는 데 유도만큼 좋은 운동이 없어요.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 유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유도의 덕목 중에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뜻의 유능제강(柔能制剛)만 봐도 알 수 있죠.”

삶을 살아가는 자세로 삼기에도 충분한 유도의 덕목 중에는 정력선용(精力善用)과 자타공영(自他共榮)도 있다. 정력선용은 자신의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한다는 뜻이며, 자타공영은 나와 타인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도의 덕목에 대해 말하는 안영환 원로의 모습에서 겸손과 존중으로 다져진 곳곳함이 느껴졌다.



GAMES OF THE 24TH OLYMPIAD SEOUL 1988

▲ 제24회 서울 올림픽경기대회 심판(1988)



제14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 THE 14TH WORLD JUDO CHAMPIONSHIPS FOR MEN 1985 SEOUL

▲ 제14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심판(1985, 왼쪽에서 두 번째)

### 제자와 스승으로 함께하다

유도선수로 활동하던 안영환 원로는 교직에 몸을 담으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부산에 있는 동아고등학교 졸업 후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대단했던 학구열을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였다.

“학생들이 유도를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게 지도했어요.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단련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 집중하도록 했죠. 유도의 다양한 기술도 단단하게 갈고닦은 내면에서 나오니까요.”

안영환 원로의 훌륭한 가르침은 제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제자인 부산광역시 유도회 신득성 회장은 지금까지도 스승의 가르침에

보답하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유도회에서 막중한 역할을 해내며 유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

“배정고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가르치던 제자예요. 그때도 근성이 남달랐는데 지금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걸 보면 뿌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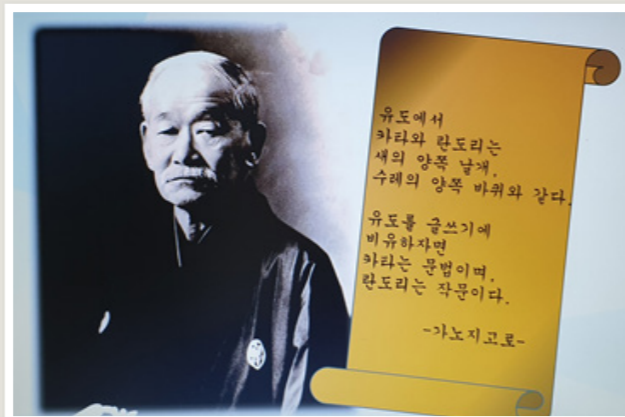
인터뷰 내내 안영환 원로의 결을 지킨 신득성 회장은 사심을 버려야 잘할 수 있는 게 유도라며 기본 동작인 카타를 강조했다.

“태권도에 품새가 있다면 유도에는 카타가 있어요. 저는 도복부터 챙겨 입고 늘 기본을 강조합니다.”

스승과 제자로 만나 오랜 시간 함께해온 두 사람의 모습에서 친밀하면서도 단단한 믿음이 느껴졌다.



▲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결누르기 시범을 보이는 안영환 원로



▲ 유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카타'

###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안영환 원로의 도전은 계속되었다. 1981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유도 국제심판 B 자격에 이어 1983년에는 홍콩에서 국제심판 A 자격까지 따낸 것이다.

“선수부터 교직, 국제심판 자격을 얻게 되기까지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재미가 있었고, 늘 즐겁게 했거든요.”

1984년 제3회 세계여자유도선수권대회 국제심판,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경기대회 심판까지 안영환 원로의 심판 경력은 일일이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중에서도 1986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대륙간유도대회에서의 아시아 대표 심판은 가장 의미 있는 업적 중 하나다.

“아시아 전체를 대표해서 딱 한 명만 참가할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 뽑혀서 나갔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놀랍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안영환 원로는 최근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며 인터뷰 분위기를 풀어주기도 했다.

“얼마 전 길을 걸다가 크게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대로 넘어졌으면 얼굴을 많이 다쳤을 텐데 나도 모르게 전방 낙법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 지금까지 해온 유도 덕분이죠.”

유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앞으로의 바람에 대해 묻자 신중하면서도 애정 어린 답변이 돌아왔다.

“유도는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해 각종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해왔어요. 이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훌륭한 선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유도라는 종목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안영환 원로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좌우명 삼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 그 묵묵했지만 찬란했던 삶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 PROFILE



### 주요 이력사항

- 동아고등학교 졸업(1958)
-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졸업(1965)
- 배정중학교 체육교사 유도감독(1967)
- 배정고등학교 체육교사 유도감독(1970~1991)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졸업(1974)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체육학과 강사(1979~1981)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심판 B 합격(1981)
- 홍콩국제유도대회 참가 국제심판 A 합격(1983)
- 제5회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국제심판(1984)
- 제3회 세계여자유도선수권대회 국제심판(1984)
- 제14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심판(1985)
- 대륙간유도대회 아시아 대표 심판(1986)
- 제24회 서울 올림픽경기대회 심판(1988)
- 제2회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 심판(1997)
-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청소년계 체육과 장학사 (1991~1995)
- 부산광역시 금곡중학교 교감(1995~199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체육청소년계 계장 장학관 (1996~1998)
- 부산광역시 용호중학교 교장(1998~2001)

### 주요 수상내역

- 제24회 서울 올림픽경기대회 유도심판 공로패(1988)
- 한국중고유도연맹 모범심판상(1998)
- 용인대학교 총장 감사패(2009)
- 대통령훈장(홍조근정훈장, 2001)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 화려한 발놀림, 금빛을 향해 하이킥을 날리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우리나라의 국기(國技) 태권도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 200곳 이상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경기대회는 물론 올림픽경기대회에서도 20년 이상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세계적인 스포츠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다. 4년 연속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을 수상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는 이제 부산을 넘어 전국으로 더 나아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미래를 그리고 있다.

## 부산의 태권도, 전국체육대회를 휘어잡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석권했다. 게다가 금메달뿐만 아니라 은·동메달까지 수상을 이어나가며 전국체육대회에서 눈부신 성과를 써내려왔다. 2008년 창단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도자와 선수들 그리고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까지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매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성과는 많은 훈련량이라는 수영구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됐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팀과는 달리 전문체육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성과는 훈련량과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선수들이 고강도, 장시간의 훈련을 이겨내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영구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는 훈련량을 통해 기량이 향상될 수 있을 만한 인재들을 선발했고 선수들은 지도 경험 많은 감독들을 만나 열정과 노력을 꽃피우며 실력을 향상시켜갔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 체계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목표를 향해 매진하다

수영구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은 양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본이자 최우선으로 여겨 훈련 프로그램에도 적극 반영했다. 그리고 선수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강화된 훈련에도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 계획표와 함께 운동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체력훈련은 요일마다 기본 근력운동, 근파워, 심폐지구력, 민첩성, 밸런스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오후에는 태권도 전문 기술훈련이 이어진다. 심박수 측정기를 통해 운동의 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요즘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개별훈련과 러닝머신 인터벌 훈련, 산악훈련을 진행하고, 실내 운동 시에도 방역지침 기준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 후에 쉬는 것도 훈련만큼 중요한데 선수들이 이번에 새로 이사하게 된 숙소가 참 좋아요. 혼자만의 공간에서 재정비도 하고 같이 모여서는 어느 때처럼 화목하게 지내니 선수들의 스트레스도 줄고 팀 분위기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태권도협회와 수영구청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2021년 한국실업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땀 때에도 주장으로서 남다른 애정과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김선구 선수는 작지만 강한 팀이라며 팀의 좋은 분위기를 자랑한다. 어깨가 탈골되는 큰 부상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은 대회에 참가한 형인혁 선수 역시 전문선수로 활동하는 만큼 힘들 때도 있지만 자랑스러운 선수들, 감독과 함께하기에 힘든 것도 뛰어넘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한다.

다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김민제, 최원근 선수는 팀에 합류한 이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나 군인세계선수권대회 1위 선수를 이기고 2021년 대한태권도협회장기대회에서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또한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대표로 참가해 은메달 획득한 박주연 선수까지, 수영구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의 모든 선수들은 따로 또 같이 팀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석훈 감독



주장 김선구 선수



형인혁 선수

# Taekwondo

### 내일의 태권도를 위한 버팀목을 꿈꾸다

힘든 훈련 속에서 각 체급별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와중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기가 취소되기도 하는 등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를 향한 애정은 결코 줄어들거나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등 여러 기관과 지도자와 선수 모두의 노력으로 수영구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는 좋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동래구 여자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의 탄생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부산 태권도계에 보탬이 되고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학생들이나 선수들에게 직장운동경기부로서 또 다른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는 팀의 성과가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하나의 선례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선수들을 포함한 모두가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자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팀이 되기 위해 수영구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는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민제 선수



최원근 선수



박주연 선수



주요 수상내역	
2008년	제 2 회 한국실업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개인전 2위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개인전 1위, 3위 등 다수 수상
2015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개인전 1위, 2위 등 다수 수상
2016년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개인전 1위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인전 1위
2019년	제13회 한국실업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단체전 3위
2021년	제15회 한국실업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단체전 3위, 개인전 3위

# 선한 팀워크로 행복한 배구를 하다

2019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 여중부 1위

이사벨중학교에 들어서자 운동장 한쪽에 배구 네트가 보였다. 교사의 지도 아래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이 모였고, 연습이 시작되었다. 추위에 떨면서도 한마음이 되어 열중하는 모습을 보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배구를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이사벨중학교 배구스포츠클럽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사벨중학교  
배구스포츠클럽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 하나되어 함께하는 배구

네트(Net)를 사이에 두고 상대방의 코트로 공을 넘기는 스포츠인 배구는 팀원들 간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선수가 함께 경기를 펼치다 보니 단합이 곧 안전으로 이어지고, 승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배구는 뛰어난 선수만이 주목받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공격이 조금 약해도 공만 잘 올려주면 팀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에게 자신이 맡은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하고, 잘하고 있는지를 강조해요.”

공 하나에 집중해 연습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사벨중학교 배구스포츠클럽만의 단합은 돋보였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연신 서로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도와주었다. 실수를 하면 탓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가르쳐 달라고도 했다. 선한 팀워크(Teamwork)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배구가 친구와 선후배 사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배구를 하면서 친구가 생겼다, 학교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뿌듯하고, 배구를 하면서 매일매일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게 기쁩니다.”

지도를 맡고 있는 허경찬 교사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이 있고, 그 몫을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 믿음의 씨앗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었다.



# Volleyball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함께했기 때문일 것이다.”



허경찬 지도교사



3학년 주장 표지원 학생



3학년 부주장 김민서 학생



칭찬과 응원으로 성장하다

주장이자 센터(Center)인 표지원 학생과 부주장이자 레프트(Left side hitter)를 맡고 있는 김민서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다. 두 학생 모두 육상과 티볼로 기초 체력을 키웠으며, 남다른 운동신경을 자랑한다.

주장 표지원 학생은 친구의 제안으로 시작하여 배구를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1학년 때는 친해지고 싶어도 먼저 표현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스스럼없이 먼저 다가가고, 다 같이 친해져서 좋아요.”

수업시간에 배구를 하면서 관심이 생겼다는 부주장 김민서 학생은 연습을 하면서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지고, 호흡이 잘 맞을 때 뿌듯하다고 했다.

“선생님이 호응을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실력이 좋아지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마음처럼 되지 않는 날에는 기죽지 않게 응원도 해주시고요.”

두 학생 모두 바라는 점으로는 실내체육관을 꼽았다. 아무래도 야외 운동장은 더위와 추위 등 날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연습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그렇고요. 가끔 배구에 관심이 있어도 운동장에서 연습하는 것 때문에 꺼려하는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여름에는 날씨도 덥지만 쉬지 않고 달려드는 모기도 무시할 수 없다. 한번은 모기에 스무 군데나 물리기도 했다.

“모기에 물린 걸 보니까 안스럽기도 하고 미안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하지 않을 이유나 핑계를 만들지 않고 잘 따라와 주는 것도 고맙고요.”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함께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촬영은 코로나19 이전에 촬영된 사진임.

믿음과 사랑으로 행복하게

2015년 창단을 시작으로 2017년과 2018년에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 여중부 3위, 2019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 여중부 1위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비결이 있다.

“대회에 나가면 여러 공이 섞이기도 하는데 우리 공은 까매서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운동장에서 연습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만큼 열심히 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지저분할 수 있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빛나는 성적만큼 잊지 못할 추억도 많다. 그 중에서도 2019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와 전국대회를 통한 경험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다.

“부산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에 참가했을 때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개인 시간을 거의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맙다고 케이크를 사왔더라고요. 경기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 중학교 시절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대회에 나가는 것 자체를 즐겼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바람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서로 도와주고, 커버(Cover)하며 배구의 기본 마인드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배구 경기를 하면서 같은 편끼리 타하는 경우는 없어요. 서로 격려하는 게 먼저죠. 승패가 결정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겼다고 박수 치며 좋아하는 것보다 열심히 준비했을 상대팀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사벨중학교의 교육관은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이다. 마음은 더 큰 사랑을 하고, 머리는 더 분명한 사고를 하고, 손은 더 큰 섬김에 쓰이기 위해 교육하는 것이 목표다. 미래를 향해 웃으며 성장하는 이사벨중학교 배구스포츠클럽의 행복한 전진을 기원한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주요 수상내역

- 2017년
  -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 여중부 3위
- 2018년
  -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 여중부 3위
- 2019년
  -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 여중부 1위
  -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 여중부 부산대표 출전
- 2021년
  - 부산학생온택트스포츠클럽배구대회 동래교육지원청 1위



정종규 교장 선생님 인터뷰(MINI INTERVIEW)

이사벨중학교는 지도교사의 대단한 열정과 서로를 배려하며 즐겁게 배구하는 학생들이 만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늘 학교스포츠클럽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응원하고 있다.

“실내체육관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해준 이사벨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이 자랑스럽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바다로 향한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 현주핀수영클럽

2017년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클럽대항전 종합 1위



전신 수트를 입은 이들이 바다에서 물살을 가르며 돌진하는 모습이 마치 돌고래의 유영 마냥 에너지가 넘친다. 스킨스쿠버에서 파생된 종목으로, 오리발을 끼고 물살을 가르며 핀(Fin)수영은 일반적인 수영에 비해 두 배 가량 더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다. 일반적인 수영과 비할 수 없는 스피드감 그리고 바다라는 대자연을 누빌 수 있어 몇 해 전부터 핀수영 동호회마다 회원 수가 크게 늘었다. 그중에서도 전국구의 실력을 자랑하는 이들이 모인 부산을 대표하는 핀수영동호회! 현주핀수영클럽을 찾아가 보았다.

### 바다라는 대자연을 함께 누비는 취미 공동체

핀수영은 1950년대 수중스포츠를 관장하는 각국 협회의 창설로 국제기구인 세계수중연맹(CMAS)이 출현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공식적인 핀수영 경기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1968년 한국스킨스쿠버다이빙클럽의 창설과 더불어 핀수영 보급을 시작해 오늘날 대한수중협회가 되기에 이르렀다.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은 2000년 10월, 제81회 전국체육대회부터이다. 이처럼 길지 않은 핀수영의 역사에 반해 현주핀수영클럽의 역사는 2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클럽의 시작은 친목 도모 차원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지금은 사라진 부산의 몇몇 수영장 회원 9명이 뜻을 모아 지난 2002년 11월 2일 창단한 현주핀수영클럽은 현재, 300명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대형 핀수영클럽으로 성장했다. 고정 회원수가 100여 명이라 볼 때, 정기 모임에 나오는 회원, 대회 시에만 나오는 회원, 바다수영 회원 등 회원들의 참여 비중은 매번 다르다.

핀수영 자체가 강도 높은 체력을 요하는 스포츠인데다, 경기방식 또한 수영장경기, 잠영경기, 장거리경기, 남녀 개인경기, 단체경기, 계영경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회원들의 기량이나 컨디션에 따라 움직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도 매주 정기모임은 이뤄진다. 대회를 앞두고는 동의과학대학교스포츠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집중훈련에 임하기도 한다. '따로 또 같이' 움직이지만 장점도 있다. 각자의 터전에서 뽀빠이 흩어져 연습하고 또 모이다보니 시간적 간격을 두고 새로운 것을 접하고, 새로운 정보를 모아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클럽 명칭에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부제를 단 것도 창단 시,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공동체적 마인드를 반영한 것이었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본 촬영은 코로나19 이전에 촬영된 사진임.

### 바다핀수영의 메카, 표본이 되다

부산에서 열리는 바다핀수영대회는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한다. 현주핀수영클럽은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에서 종합 1위를 독차지할 만큼 실력 면에서도 명성이 자자하다. 부산이라는 해양 인프라와 최적의 연습장소, 이를 통한 다양한 경험치 그리고 수준 높은 강습과 훈련 등이 쌓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03년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바다핀수영대회에서 종합 1위, 2003년부터 3년 연속 울산광역시장배 전국 바다핀수영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또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우수동호인 클럽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현주핀수영클럽은 전국대회의 매뉴얼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이력도 있다. 바다에서 이뤄지는 핀수영의 경우, 실내수영보다 체력소모도 많은 데다 환경적인 변수가 많아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바다수영 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회원들이 최선의 기량을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둔 현주핀수영클럽은 내부규정을 전국대회 규정으로 변모시키기도 했다. 대회 시작 전 음주 축정을 하는 규정과 심장마비 예방을 위한 전용 슈트 착용 의무화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전국의 모든 바다핀수영대회가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인터뷰(MINI INTERVIEW)

김형정 회장



핀수영의 가장 큰 매력은 스피드입니다. 흔히 핀수영이 이뤄지는 바다수영은 위험하리라 생각하시겠지만, 충분한 강습과 올바른 판단만 이어진다면 인생에서 맛보지 못한 큰 희열을 전해주는 것이 핀수영의 묘미입니다. 저 또한 수영장에서 오래 수영을 하다가 또 다른 도전 차원에서 핀수영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력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마치 하나의 챕터를 다시 여는 것 마냥 원대한 목표 의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현주핀수영클럽은 전통이 오래된 만큼 회원층의 연령대 또한 다양하고도 두터운데, 보다 젊은 2030 회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들에게 저희가 가진 실력과 노하우를 마음껏 전해주고 또 이를 통한 생활체육의 발전, 나아가 부산 수영계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순 없겠지요. 아울러 저희가 전문 체육가는 아니지만, 클럽차원에서 학생 선수들의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현주핀수영클럽'의 초심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촬영은 코로나19 이전에 촬영된 사진임.

### 바다와 하나되듯 동호인들에게 흡수되다

일반 수영은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 조건을 이용하는 반면 핀수영은 추진 장치인 모노핀(Monofin)과 숨을 쉬도록 하는 스노클(Snorkel) 등의 도구를 이용한다. 현주핀수영클럽의 경우, 이러한 고가의 장비를 회원들이 함께 공유하며 사용하고 있어 혹시라도 신입회원이 입문하게 된다면 이러한 메리트 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장점도 있다. 아울러 10년 이상 회원자격을 지속하게 되면, 자동으로 평생회원으로 승격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된 방역수칙 준수로 현재는 대회 참여도 그렇거니와 회원들 간 활발한 교류도 잠시 멈췄지만, 현주핀수영클럽의 수면 아래 행보는 여전히 분주하다. 클럽 간 정보교류를 통해 향후 있을 대회 추진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부산의 많은 시민들에게 핀수영을 통한 즐거움을 전하는 게 클럽의 큰 목표인 만큼, 회원증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바다를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색함도 떨쳐버리세요. 동호인들이 가르치고, 동호인들에 의해서, 동호인들에게 흡수되듯 자연스럽게 테니 큰 부담 없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며 시민들의 가입을 독려했다.

“부산의 많은 시민들에게 핀수영을 통한 즐거움을 전하는 게 클럽의 큰 목표인 만큼, 회원증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주요 연혁 및 수상내역

- 2001년 • 11월 현주핀수영클럽 창단
- 2003년 • 이충무공배 전국핀수영대회 종합 1위  
•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바다핀수영대회 종합 1위  
• 제주도 전국 핀수영대회 종합 1위
- 2004년 •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바다핀수영대회 종합 1위
- 2006년 • 부·울·경 아레나 마스터즈 수영대회 종합 1위  
• 제1회 해양스포츠대전 종합 1위  
•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바다핀수영대회 종합 1위
- 2007년 • 전국종별핀수영대회 종합 1위
- 2008년 • 부산광역시 생활체육협회장배 스킨스쿠버대회 단체 종합 1위
- 2013년 •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국제장거리 수영대회 종합 2위
- 2017년 •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클럽대항전 종합 1위
- 2018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생활체육 스킨스쿠버대회 종합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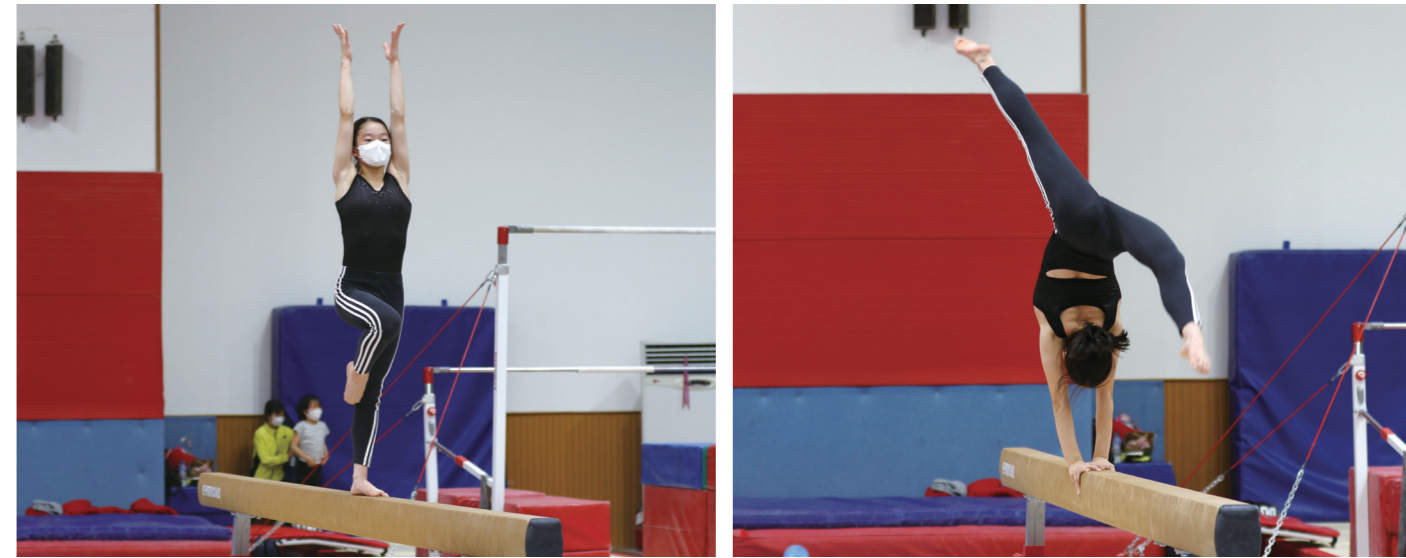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을 찾아간 우수선수, 히어로가 되다!

##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이하 부산거점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며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선진국형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한체육회·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체육회의 지원을 받아 2017년 발족했다. 테니스, 역도, 체조, 펜싱 등 접하기 어려운 종목을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들이 수준 높은 커리큘럼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곳에는 우수선수를 비롯해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모여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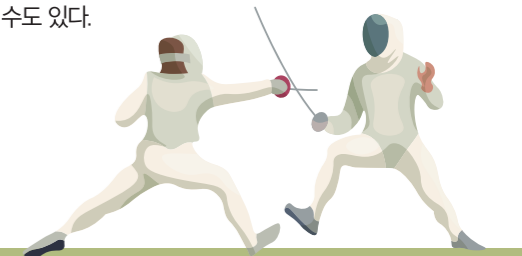
##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교집합

부산거점스포츠클럽에서는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테니스를 비롯해 역도, 체조, 펜싱 등 수준 높은 체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역도훈련장, 체조체육관, 펜싱훈련장 등 우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도 강점이다. 또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동반 육성하는 광역 단위의 스포츠클럽으로, 다양한 이들이 모이는 곳이다. 현재 총 358명의 회원 중 생활체육은(2021년 10월 기준) 테니스 250명, 역도 21명, 체조 11명, 펜싱 7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선수반은 총 35명 중 테니스 11명, 역도 1명, 체조 9명, 펜싱 14명이 소속되어 있다. 서로 같은 공간에서 수강과 교육을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게 되고,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서 지역 체육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전문시설에서 전문장비로 배우다

부산거점스포츠클럽에서 운영 중인 전문선수반의 경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초·중학교 선수들 로만 구성되어 있다. 부산거점스포츠클럽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에 부산광역시 대표로 테니스 남초부 3명, 여초부 3명, 여중부 1명 그리고 체조 남초부 1명, 여초부 2명을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시켰다. 또 어린이 꿈나무에 체조 여초부 2명, 펜싱 남중부 1명이 선발되기도 했는데, 이는 학교체육 전문선수들 외 스포츠클럽에서 부산광역시 대표가 선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부산거점스포츠클럽에서 강습을 받는다면, 시설이나 장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특히 테니스 종목의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의 개폐(開閉)형 실내테니스장인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운영하고 있어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으며, 체조의 경우는 사직체조체육관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 우수선수에서 체조 국가대표를 꿈꾸다

부산거점스포츠클럽 소속 윤자영(창신초등학교) 선수는 지난 11월 26일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체조경기에서 전 종목 결승에 진출하여 도마에서 1위, 평균대에서 2위를 차지했다. 윤 선수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뛰어넘은 결과가 나와 뭉클"이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주목할 점은 이번 대회에서 윤 선수는 평소 강점 종목이었던 이단평행봉이 아닌 도마와 평균대라는 새로운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점이다. 훈련 프로그램을 선수 개인에 맞춘 것이 아님에도 성실하게 끝까지 해낸 것이라 더욱 값진 수상이었다. 특히나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훈련 공간조차 마땅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라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윤 선수는 이러한 불편함보다 준비한 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던 상황이 더 힘들었다고 말한다. 대회에 참가해 객관적인 실력을 점검해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해서 못내 아쉬웠던 것이다. 그러던 중 어렵게 참여한 대회에서 거둔 결과는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윤 선수의 수상 배경에는 기계체조 국가대표 출신인 최신우 감독의 노력이 컸다. 최 감독이 본 윤 선수의 강점은 바로 끈기와 노력이다.

"초등학교 3학년을 앞둔 2017년도에 학교에서 우수선수로 선정된 윤 선수가 들어왔는데 한눈에도 탁월한 재능이 엿보였습니다. 그렇게 실력을 연마하던 중 지난해 발바닥 부상으로 위기를 맞았죠. 그럼에도 연습과 재활을 병행하던 윤 선수의 모습에 지도자로서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년이면 6학년이라 공부에도 부담이 클 것 같다는 물음에 윤 선수는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지만 모두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싶다"는 말로 우문현답을 내놓았다. 그런 윤 선수의 롤 모델은 타임지가 선정한 '2021년 올해의 운동선수'인 시몬 바일스(Simone Biles, 체조)이다. 윤 선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윤 선수는 미래 모습에 대해 "아직 기회가 많은 만큼 부상을 입지 않고, 즐겁게 계속 체조를 하고 싶다"는 말로 청사진을 대신했다.



# History

## 부산거점스포츠클럽 연혁

- 2017. 05. 비영리법인 설립
- 2017. 07. 부산거점스포츠클럽 테니스, 역도, 체조, 펜싱 전문선수단 창단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방과후교육학교 운영 MOU 체결  
교보생명컵 전국꿈나무체조대회 단체 1위, 개인종합 3위
- 2017. 12. 제2회 부산체조협회장배 생활체조대회 체조댄스 1위
- 2018. 03. 2018 대한펜싱협회장배 펜싱대회 여초부 2위·3위
- 2018. 0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체조 일반부 1위
- 2018. 08. 한국중고펜싱연맹 펜싱선수권대회 남초부 단체 2위, 여초부 단체 2위
- 2018. 09. 대한역도연맹회장배 전국역도대회 여자시니어부 1위
- 2019. 03. 대한펜싱협회장배 전국펜싱대회 여초부 단체 1위, 남초부 개인 1·2·3위, 여초부 개인 2·3위
- 2019. 04. 중교연맹회장배 전국펜싱대회 남초부 단체 1위, 여초부 단체 1위
- 2019. 05.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대표 출전(테니스 7명, 체조 3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펜싱대회 남초부 단체 1위, 여초부 단체 1위  
교보생명컵 전국체조대회 남초부 단체 1위, 개인종합 남초부 3위, 여초부 1위
- 2019. 08. 제4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조대회 남초부 단체 2위
- 2019. 09.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 출전(체조 1명)
- 2020. 07. 2020 부산광역시펜싱협회장배 펜싱대회 남중부 개인 1위·2위
- 2020. 10. 대한펜싱협회장배 전국펜싱대회 남초부 단체 2위, 여초부 단체 1위, 개인전 여초부 1위, 남초부 2위·3위
- 2020. 12. 대한체조협회 꿈나무선수 발탁(여초부 1명)
- 2021. 07. 대한펜싱협회 꿈나무선수 발탁(플리레 남중부 1명)
- 2021. 09. 대한체조협회 꿈나무선수 발탁(여초부 2명)



## 윤자영 선수 수상내역

- 2017. 07. 부산거점스포츠클럽 체조전문선수반 입단
- 2019. 03.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체조 부산대표 선발
- 2019. 11. 제4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대회 생활체조 청소년부 3위
- 2021. 06.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선발전 5관왕(개인종합, 마루, 도마, 평균대, 이단평행봉)
- 2021. 11.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초부 도마 1위, 평균대 2위(전 종목 결승 진출)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 미래를 바라보면서 적정한 규모의 신축 경기장을 만들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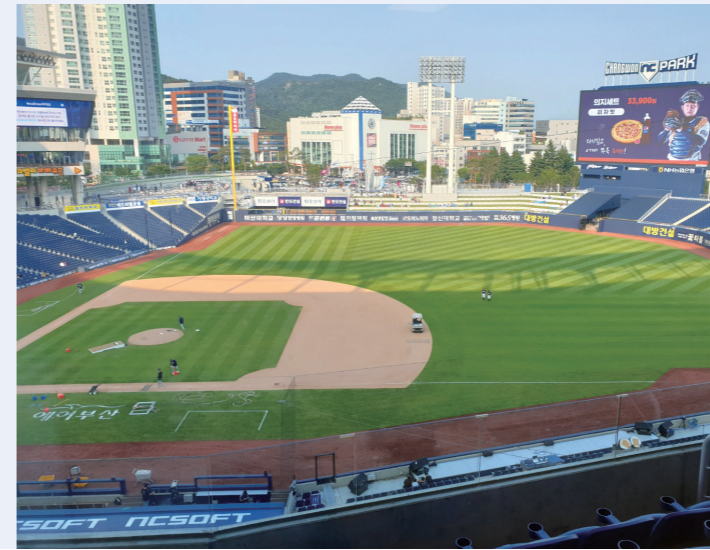
## 부산의 스포츠시설은 너무나 열악하다!

부산광역시의 스포츠시설은 매우 노후화되어 있다.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때 건설된 경기장도 20년이 지나고 있고, 그 이전부터 건설되어 보수하면서 사용되고 있는 경기장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프로축구 경기장인 구덕운동장과 프로야구 경기장인 사직야구장은 프로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시설이고, 관중을 위한 부대 시설도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하다.

▼ 부산 사직야구장 전경



글\_ 부산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조승현



▲ 창원 NC 파크마산구장



▲ DGB 대구은행파크 경기장 입구

대형 스포츠시설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건설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절대 새로운 스포츠시설을 건립할 수가 없다. 좁은 면적에 인구는 광역시 기준 2위(342만 명)이고, 바다를 끼고 있어서 육상과 해상 스포츠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다보니 스포츠시설 관련 예산이 나누어지면서 대형 스포츠시설을 짓는 것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부산광역시가 지난 11월에 발표한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경기장 신축에 대한 보도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의 사직야구장은 1985년에 준공되어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시설은 낡은 대로 낡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후진' 야구장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구덕운동장은 1928년에 준공되어 1973년에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증축된 경기장이다. 프로축구 경기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경기를 하고 있는 곳이다.

## 야구는 사직야구장! 축구는 구덕운동장!

프로야구가 1982년, 프로축구가 1983년에 출범하면서 이 두 경기장은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아와 선수들을 응원하였다. 특히, 야구는 구도(球都) 부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부산시민의 야구사랑은 독특하였고, 부산하면 야구의 도시로 손색이 없었다. 지금은 두 종목의 프로구단의 성적이 초라해지면서 다소 열기는 식었지만, 언제라도 부산시민의 야구와 축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



STADIUM

### 명칭사용권을 통한 건설비용 절감

야구장과 축구장의 신축에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재건축이 타당한 것으로 나온 후 정부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일부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지만 나머지는 부산광역시와 스폰서 기업이 충당을 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적절한 경기장 규모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기장 관중석 수에 따라 규모와 건설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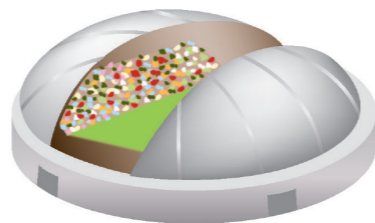
최근에 건설된 야구장과 축구장은 명칭사용권(Naming Rights)을 통해 건설비용의 일부를 충당하였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994억/20,500석/2014년), 대전한화생명 이글스 파크(13,000석/2015년), 창원 NC 파크마산구장(1,270억/22,112석/2019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1,666억/24,000석/2016년), DGB 대구은행파크(515억/12,419석/2019년) 등이 그 사례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설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고, 계약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통해 시설관리를 충당한다면 그리 많은 세금을 들이지 않더라도 최상의 경기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신축 경기장의 적절한 규모는?

프로야구는 2017년에 가장 많은 관중수인 8,400,688명이 입장하였고, 이후 소폭의 감소를 보였다. 사직야구장의 평균관중이 가장 많았을 때는 2008년 21,901명이었다. 당시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부임했고 정규시즌 3위를 기록하면서 22차례의 입장권이 매진된 시기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금은 최대 2만석 정도가 가장 적절한 관중석 규모이다. 부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간접 관람을 많이 하므로 더 이상의 직접 관람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프로축구는 구덕운동장을 프로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아시아드주경기장은 육상트랙이 있는 종합경기장이라 관람을 해보면 선수와의 일체감을 갖기 어렵다. 또한, 관중석이 너무 많아 임대료가 비싼 단점이 있었기에 구덕운동장으로 홈을 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구덕운동장에 신축할 축구장은 축구전용경기장이 되어야 한다. 선수들과 팬들이 더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경기를 즐기게 해주어야 한다.

프로축구는 2019년 8,051명의 평균 관중수를 유지했다. 여기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천 명 수준이었다가, 2019년 1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린 대구FC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대구FC는 대구월드컵경기장을 떠나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대구시민운동장을 축구전용경기장으로 리모델링하여 2019년부터 사용하면서 관중 수가 적정한 수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도 최대 12,000석 정도면 프로축구 경기장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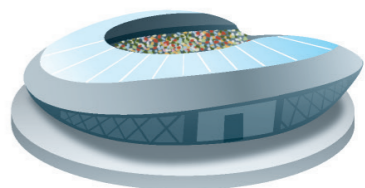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적절한 경기장 규모는 매우 중요하다. ”



SCALE



▲ DGB 대구은행파크



### 자투리 공간에 대한 활용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야구장은 최대 3만석, 축구장은 최대 2만석 규모라 보도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중석의 규모는 역대 관중수, 평균 관중수, 미래의 부산 인구, 간접 관람 비중의 확대·축소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어느 누가 큰 경기장을 좋아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만약에 관중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낭비가 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가 끝나고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관중석의 규모가 줄어들면 부지 면적에서 건설 면적 이외의 남은 공간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남은 공간에 영화관, 결혼식장, 대형마트, 가전센터 등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주차공간을 더 확보한다면 1년 내내 시민들이 방문하는 스포츠를 연계한 복합 문화시설이 창출될 수 있다. 급작스런 발표라는 말도 나오지만 올바르게 차곡차곡 진행되어 부산시민의 숙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사진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아카이브, 창원 NC 파크마산구장, 대구FC



USES

sports in science



# 올바른 스포츠윤리교육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이유



글\_ 동국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신정택

● 스포츠에 이렇게 많은 윤리적 이슈들이 있는지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운동선수로서 경기장에서 반칙하지 않고 공정하게 플레이만 하면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업을 듣고 스포츠가 이렇게 인권, 인종, 젠더, 동물, 환경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 알게 되면서 내가 하는 스포츠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결국 내가 사랑하는 스포츠가 대중들에게 외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선수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스포츠윤리교육이 어린 선수시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2학년 골프 특기자)

골프 경기는 심판이 없는 유일한 종목이에요. 미국 프로 골프 시합에서 우승한 선수가 자신이 규칙을 어겼다고 자진 신고했어요. 우승 대신 자신의 양심을 선택한 거죠. TV 뉴스에서 보고 스포츠맨십이 얼마나 멋지고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의 삶에도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고등학생 선수)

## ● 청소년의 현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릴 만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며, 부모에게 보호받는 의존적 삶으로부터는 벗어났으나 완전하게 자립을 이룬 독립적인 상태에 미치지 못한 중간과정으로 주변인의 상태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경험과 사고가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에 잘못 형성된 인성은 성인기의 사회적 문제로 연결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과도한 입시, 취업, 사회의 경쟁적 환경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긍정적 자아 및 인성 발달의 문제와 부정적 정서, 비행과 이탈, 학교폭력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 문제로 응답자의 48%가 '학생의 인성 및 도덕성 약화'를, 그 다음으로 '학교폭력'을 주요 과제로 응답하였으며, 문제 해결책으로는 학교에서의 인성(Character) 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사회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스포츠 현장의 지도자, 교육자, 학부모, 일반인들은 스포츠 활동이 인성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한다. 스포츠 참여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윤리교육이 청소년의 인성과 올바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포츠가 강조하는 페어플레이 정신, 스포츠맨십, 공정, 경쟁이나 협력과 같은 긍정적 특성과 도핑, 승부 조작, 폭력, 도박 등과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토의와 고찰은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Sports Ethics Training

### 스포츠는 사회의 거울

스포츠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며, 주요 문화의 한 부분이다. 사회가 빠른 변화 속에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스포츠는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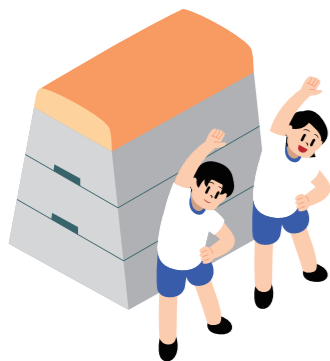
스포츠의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부정행위(승부조작, 약물, 심판매수, 고의적 반칙)들은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부정행위들을 모럴 다이어트(Moral diet)라 한다.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의 전 단계의 개념이며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스포츠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의 신호 위반 경험, 심판의 잘못된 판정임을 확실히 인지하였지만, 승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넘어간 경험과 같은 수많은 사소한 부정행위에 익숙해졌다.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 활동, 스포츠 관람, 스포츠 사례 등을 활용하여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토론과 고찰은 일상생활의 윤리와 도덕성 향상과 연결될 수 있다.

### 스포츠윤리교육

스포츠계의 비윤리적 사건들은 어느 한 개인의 치부가 드러나는 상황으로만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와 사회 전반에 전이된다. 이에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스포츠윤리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윤리적인 스포츠 선수들은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도덕적 표본이 될 수 있다. 스포츠윤리교육의 핵심은 교육주체(누가), 교육내용(무엇을), 교육방법(어떻게)에 관한 내용이다. 스포츠 선수와 청소년은 실제로 스포츠 현장에서 부딪치는 윤리적인 상황을 다루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소년시절부터 스포츠윤리 인식 및 도덕성 함양을 위한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스포츠 현장에서 부딪치는 윤리적 갈등 사례에 대해 토론해보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사고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스포츠윤리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토론 주제로는 아래와 같다.

#### 스포츠윤리교육 딜레마 토론 수업 주제

- 승부조작은 선수의 문제인가?
- 스포츠에서 남녀의 구분은 진정한 평등인가?
- 학교체벌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 스포츠를 통한 도덕 교육은 가능한가?
- 스포츠에 비디오 판독은 도입되어야 하는가?



### 글을 맺으면서

‘Winning is not everything(승리가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선수는 시합에서 규칙을 지키면 최선을 다하고 좋은 매너로서 ‘Good Loser(깨끗이 질 수 있고 승복할 수 있는 정신)’를 가지고 마지막 끝나는 순간에도 예의를 표시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패하더라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은 어떤 윤리교육 프로그램보다도 울림이 크다. 스포츠가 강조하는 페어플레이 정신, 스포츠맨십, 공정, 경쟁과 협력 등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한 예의, 겸손, 용기, 복종 등의 정신은 스포츠 선수는 물론 유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덕목이다.

스포츠는 우리 사회의 문화이자 그 이상으로 도덕적이고 정직해야 한다. 스포츠가 비도덕이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것이며, 스포츠 또한 그러하다. 스포츠에서는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도덕 및 윤리교육을 실질적이며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하며, 나아가 선수와 지도자들은 학교, 자격증, 연수, 특강에 있어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을 필수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박성주(2016),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체육학회지, 55(1), 37~47.  
김진훈, 이호근(2014) 스포츠와 부정행위-모럴 다이어트와 모럴 해저드에 대하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8(1), 77~86.

“ 스포츠는 우리 사회의 문화이자 그 이상으로 도덕적이고 정직해야 한다. ”





# 부산의 진산(鎭山)처럼 구민이 주인이 되어 일상의 생활체육을 누리다

## 금정구체육회

부산의 진산, 금정산을 품은 곳이자 자연과 문화·예술, 교육이 맞물린 명품도시인 금정구! 회동수원지와 금정산 둘레길, 온천천·수영강변 산책로 등이 어우러진 걷기코스를 비롯해 금정국민체육센터와 오륜동인조잔디구장 등 금정구의 생활체육 인프라는 넓고 높은 부산의 진산과 맥을 같이한다. 금정구체육회를 만나보자.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 도심 속 운동의 갈등을 해소시키다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금정구체육회는 21개 종목(16개 정회원, 1개 준회원, 4개 인정단체), 198개 클럽, 5,568명의 동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정구체육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는 오륜동인조잔디구장이 있다.

2021년 5월 새롭게 리모델링해 재개장한 이곳에서는 축구,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등 많은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생활체육 축구대회 케이 세븐(K-7) 금정구리그’가 개최되었고, 6월에는 그라운드골프의 ‘2021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예선전’이 펼쳐지는 등 굵직한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금정구의 생활체육시설은 이뿐만이 아니다. 신천테니스장, 금정구청테니스장, 선동천연잔디구장, 노포게이트볼장, 수영강변게이트볼장, 금정족구장, 금정구민체육관, 금정구민운동장 등에서도 다양한 체육활동과 함께 8개 구청장기대회, 14개 협회장기대회 등이 펼쳐진다.

### 전용구장,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인다

광활한 인조잔디구장에서 펼쳐지는 한판 승부! 금정구체육회가 자랑하는 회원종목단체는 바로 축구다. 매년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대회, 창립기념대회 등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금정구축구협회는 수상이력도 만만찮다. 최근에는 20~30대부 부산대표 선발과 제32회 시민체육대회 우승 등 각종 대회를 휩쓸며 지역체육의 위상을 높였다. 그중 K-7리그, 유소년 1-리그 등은 타 종목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유소년 1-리그의 경우, 지난 11월 28일 ‘1-리그 찾아가는 축구축제 행사’의 개최지로 선정, 성공리에 행사를 마무리해 큰 성과를 내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어르신 종목의 감점도 두드러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각 종목별 전용구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이트볼 종목은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노포게이트볼장과 수영강변게이트볼장 등을 전용구장으로 보유하고 있다. 또 그라운드골프는 오륜동인조잔디구장을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 5일 동안 3개 클럽이 순차적으로 클럽 활동과 대회(구청장기, 협회장기대회 등)를 개최하고 있다.

### 길을 걷다가 일상처럼 즐기는 생활체육

금정구체육회는 관내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와 초고령사회에 발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금정구 해·달맞이생활체육교실’이 그 대표적인 예다. 온천천광장에서 펼쳐지는 국학기공 수업으로, 수업 시작 전 정원(30명) 수가 빈다 싶으면 현장 등록 후 곧바로 참여할 수 있다. 국학기공 종목 특성상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치 않아 오전 6시라는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금정구체육회는 학교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프로그램을 비롯해 금정구 자체 사업인 ‘우리동네 체육코치’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금정구체육회 지도자들이 관내 온천천 일원으로 직접 찾아가 구민들에게 올바른 운동기구 사용법을 지도하는 그야말로 찾아가는 체육 수업이다.



“ 금정구체육회는 관내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와 초고령사회에 발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



### 장성수 회장 인터뷰 (MINI INTERVIEW)

저는 구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체육문화를 즐기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금정구체육회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입니다. 최근에 금정구체육회는 오륜동 배수지 내 유휴공간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금정구청, 상수도사업본부, 부산광역시의회와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정구 관내 파크골프장이 전무해 타 구의 파크골프장을 전전하고 있는 동호인들을 위해 오륜동인 조잔디구장 내 연습공간 및 간이 홀 조성으로 파크골프협회 동호인들이 조금이나마 쉽게 파크골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관내 공공체육시설인 금정국민체육센터와 업무 협조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장수체육교실 운영 시 실버수영, 아쿠아로빅 종목 등에 강사 및 수업장소 확보를 통해 금정구민들에게 무료로 수업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금정구민체육관을 위탁운영 중인 금정구지역자활센터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회원종목단체인 배구, 배드민턴 종목 동호인들의 운동장소 확보 및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 통합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정구 지역 전문체육선수부터 동호인까지 모든 구민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금정구체육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진국 부회장 인터뷰 (MINI INTERVIEW)

금정구체육회는 '생활체육 7330'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명소를 알리고 금정구의 체육시설 및 레저시설을 홍보하여 시설 확충 및 주변 스포츠 상업시설 유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대표 체육시설인 온천천 도보와 자전거도로, 헬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적극 이용하여 다양한 체육행사 및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20일, 장전동 온천천 일원에서 각종 체육 부스를 설치한 '라라라 놀이체육 한마당' 행사를 진행하여 구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회동수원지와 오륜대 둘레길 등 지역 명소들의 홍보 및 해당 명소를 이용한 프로그램 및 행사 이벤트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정구체육회는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구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꾸준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도자 인터뷰(MINI INTERVIEW)

#### 강경환 지도자(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저는 입사 후 처음으로 어르신 대상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유아 대상 체육수업을 했기에 어르신 체육 수업은 무척이나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늘 손자처럼 좋아해주는 어르신들 덕분에 많은 부분을 배우고 경험했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수준 높은 생활체육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꿈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 공민권 지도자(일반생활체육지도자)

현재 저는 유튜브에 올라가는 생활체육운동 지도 영상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수업으로 전환되지 않은 수업의 공백과 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관 등에 온라인 줌(Zoom) 수업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구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동영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 서장호 지도자(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저는 생활체육교실, 장수체육교실,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등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개최되는 종목별 구청장기대회 담당자로, 체육동호인들의 화합과 지역 체육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소중함이 절실한 요즘,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일이 보다 많이 생기를 기대합니다.

#### 성경화 지도자(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노인대학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길을 가다 늘 먼저 알아봐주시며 "우리 노인대학 선생님! 수업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라는 격려를 해주실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동영상 제작 및 쌍방향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서 어르신들과 즐겁게 수업할 날을 고대합니다.

#### 안재경 지도자(일반생활체육지도자)

예전에 유아체육 수업을 하는 아이의 학부모를 제가 수업을 나갔던 지역아동센터에서 뵈는 적이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학부모님은 아이가 유치원에서 체육시간을 제일로 기다린다고 제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는데, 그때 진한 감동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모든 수업을 열과 성을 다해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정수호 지도자(일반생활체육지도자)

저는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이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강생들의 생생한 발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다소 힘든 강도의 운동을 준비해가면 처음에는 수강생들이 "너무 힘들다", "운동이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하시다가도 회를 거듭할수록 "이제 더 쎈 거 없습니까?"라는 말로 저를 놀라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체육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다순 배열)



ISSUE & FOCUS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다 제32회 부산시민체육대회 개최

부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32회 부산시민체육대회가 지난 11월 27일(토) 개최됐다. 장소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외 5개 경기장에서 진행했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으로 더 의미가 있었던 현장 속으로 가보자.



###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 최우선

제32회 부산시민체육대회 종목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족구, 축구, 테니스, 파크골프 총 6개이다. 참가인원은 부산광역시 구·군을 대표하는 선수 및 임원 1,240명이며, 무관중 경기를 원칙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가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대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양한 시도 끝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광역시에서만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2년 만에 어렵게 열리는 대회인 만큼 반갑고, 기쁜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대회가 침체된 생활체육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가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켰다.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준수했으며 발열체크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

부산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다. 그리고 다양한 종목에서 멋진 승부를 펼치는 선수들을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도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동호인들의 모범적인 참여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제32회 부산시민체육대회가 시민이 소통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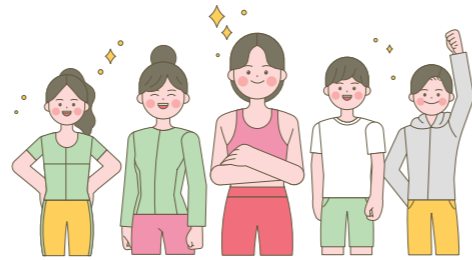
대회 결과 종합시상에는 경기력상에 사상구, 성취상에 사하구, 질서상에 금정구와 영도구, 강서구에게 돌아갔다. 화합상은 남구, 연제구, 기장군이 받았으며 건강상에는 중구를 포함해 8개 구(區)가 차지했다. 경기운영상은 족구, 그라운드골프 종목이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제32회 부산시민체육대회가 모두의 염원을 담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부산시민체육대회를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부산체육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



## 체계적인 생활체육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다 2021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실시

지난 11월 30일(화)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2021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 맞춤형 안전 직무교육을 제공해 스포츠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 생활체육지도자 노고에 감사

2021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은 245개의 전국 지방체육회(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에서 선정한 장소에서 진행했다.

부산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110명(일반생활체육지도자 69명,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41명)이 참가했으며 일정에 따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교육에 참석할 수 있었으며, 출입 전에는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는 출입을 금지했다.

개회식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박가서 부회장이 참석해 기념품을 전달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격려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박가서 부회장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쓰는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교육이 부산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체계적인 생활체육지도에 이바지

교육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교육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교육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체험이 가능하다.

일정은 오전 교육 후 중식, 오후 교육으로 진행했다. 오전에는 참가자 등록 및 개회식 후 안전의식 및 지도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했으며, 오후에는 스포츠 인권 교육 및 지도자 간담회가 분임 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은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과 생활체육지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많은 시민이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 ICE HOCKEY

## 동계올림픽경기대회의 꽃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는 동계올림픽경기대회가 처음 시작된 1924년 샤모니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다. 역대 동계올림픽경기대회의 최고 인기 종목으로서 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 마라톤처럼 동계올림픽경기대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아이스하키 결승전은 매년 초미의 관심사로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 세계에서 사랑받는 아이스하키의 인기

아이스하키(Ice Hockey)는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Skate)를 신고 스틱(Stick)을 이용해 고무로 만든 펙(Puck)을 골대에 넣어 점수를 내는 스포츠다. 하키는 스틱을 뜻하는 프랑스 단어 '호케(Hocquet)'에서 유래된 말로 땅에서 하는 하키는 필드하키(Field Hockey), 얼음 위에서 하는 하키는 아이스하키로 불린다.

유럽에서 행해지던 스포츠를 바탕으로 1979년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McGill University) 하키 클럽 학생들이 규칙을 만들고 편을 나눠 경기한 것을 오늘날 하키의 시작으로 여긴다. 1860년대부터 공 대신 펙을 이용해 경기를 진행했으며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이주민, 영국 군인들에 의해 캐나다로 전달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해왔다.

1920년 앤트워프 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를 시작으로 1924년 샤모니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 6명이 한 팀인 남자 아이스하키가 정식종목으로 선정되었다. 여자 아이스하키는 1992년 올림픽 종목으로 소개됐으며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아이스하키는 캐나다의 국민 스포츠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미국과 북유럽 등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아이스하키 결승전은 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 마라톤처럼 가장 마지막에 치러지는 경기로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 얼음 위를 질주하는 열정의 스포츠

아이스하키 경기에는 한 팀당 6명의 선수가 참가해 20분씩 3번의 피어어드(Period)와 오버타임(Overtime)을 진행하게 된다. 각 피어어드 종료 후 15분의 휴식시간이 있으며 피어어드별로 선수팀은 진영을 바꿔야 한다. 오버타임은 총 60분의 정규시간(3번째 피어어드)이 종료되고 난 이후 진행되며 5분이나 10분 혹은 20분 단위로 구성된다.

선수는 골대에서 펙을 막는 골텐더(Goaltender) 1명과 공격수인 포워드(Forward) 3명, 수비수인 디펜스(Defence) 2명으로 구성된다. 3명의 포워드는 가운데의 센터(Center)와 왼쪽의 레프트 윙(Left Wing) 그리고 오른쪽의 라이트 윙(Right Wing), 2명의 디펜스는 좌우 양쪽의 레프트 디펜스(Left Defence)와 라이트 디펜스(Right Defence)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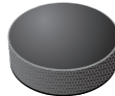
경기장에는 1.2~1.22m 높이의 펜스가 있어 사이드 아웃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인 구기 종목과 달리 선수 교체 시에도 경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빙판 위에서 끊임없이 내달리며 거친 몸싸움도 자주 발생하는 아이스하키는 빠른 호흡과 박진감 넘치는 흐름이 인기요인으로 꼽힌다.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을 때는 축구의 승부차기와 유사한 슈아웃(Shoot-out)을 실시한다. 골텐더는 팀별로 3명의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축구의 승부차기와 비교했을 때 슈아웃은 반경이 좁고 경기의 특성상 큰 장비를 착용하고 퍽을 막아내기 때문에 골텐더가 덜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 선수들의 아이스하키 장비 파헤치기

#### 퍽 • Puck •

아이스하키에서 쓰는 공인 퍽의 지름은 7.62cm, 두께는 2.54cm, 무게는 156~170g이어야 한다. 퍽은 검은색이어야 하며 가황처리를 한 고무 또는 국제아이스하키연맹이 승인한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퍽에 인쇄된 로고나 마크, 광고 등은 양면에 인쇄가 가능하지만 지름 4.5cm를 초과하거나 각 면적의 35%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기 중 퍽이 쪼개지거나 온전하지 않을 경우 경기는 즉시 중단된다.



#### 스틱

#### • Stick •

스틱은 나무 또는 국제아이스하키연맹의 규정에서 승인하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스틱에서 휘는 부분인 블레이드는 한 군데만 있어야 하며 휨 정도는 1.5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스틱의 맨 위부터 블레이드(Blade) 시작점까지의 부위인 샤프트(Shaft)는 직선 형태여야 한다. 샤프트의 최대 길이는 163cm이며, 최대 너비는 3cm, 최대 두께는 2.54cm이다. 선수의 블레이드의 최대 길이는 32cm이며 높이는 5~7.62cm 사이여야 하고, 골텐더 스틱 블레이드의 최대 길이는 39cm, 최대 높이는 9cm, 블레이드가 시작하는 힐(Heel) 부분까지 최대 11.5cm까지 허용된다.



#### 헬멧

#### • Helmet •

충격에 강한 소재를 사용해 선수들의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 전 워밍업(Warming-up)과 경기 중(정규시간, 오버타임, 페널티샷(Penalty-shot)·슈아웃 포함) 선수는 반드시 턱 끈이 올바르게 채워진 정식 아이스하키용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턱 끈과 턱 사이에는 손가락 1개가 들어갈 정도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선수는 눈썹 위로 손가락 1개 너비만큼 떨어진 곳까지 챙이 내려오도록 헬멧을 써야 한다.

경기 중 헬멧이 벗겨질 경우에는 곧바로 선수 벤치로 가야 하며, 경기에 참여하거나 퍽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경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빙판 위에서 헬멧을 다시 쓸 수 없다. 선수 벤치에 앉아 있거나 페널티 박스(Penalty Box)에 있는 경우에도 헬멧을 뒹거나 수리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바이저



풀 바이저



케이지

#### 얼굴 보호대

#### • Visor, Full Visor, Cage •

선수의 헬멧에 부착하는 보호대는 바이저(Visor)와 풀 바이저(Full Visor), 케이지(Cage)가 있다. 바이저는 헬멧에 장착되어 눈과 코 밑부분까지 덮을 수 있게 내려야 한다. 또한 위로 열리지 않도록 헬멧 옆을 따라 고정되어야 한다. 1974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남자 선수는 최소한 바이저를 착용해야 하며, 모든 여자 선수는 케이지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바이저나 케이지가 갈라지거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다른 선수와 교체될 때까지 경기에 참가할 수 있으나 빙판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손상 부위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출처: 국제올림픽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아이스하키 소개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 Sports for all, <겨울철 실내 스포츠 소개-아이스하키>  
대한아이스하키연맹, 2018-2022 국제아이스하키연맹 규정집(2nd Edition)  
사진 제공: 부산광역시체육회

# 조용히 깊이 있게 마음을 사로잡는 매너의 스포츠, 골프

한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로 여겼던 골프. 각종 매스컴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식으로 다루기 시작했을 만큼 골프는 빠르게 대중화되어가고 있다. 20대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골프의 역사와 용어 이야기를 만나본다.



# Golf

## 클럽의 옛말에서 유래한 골프의 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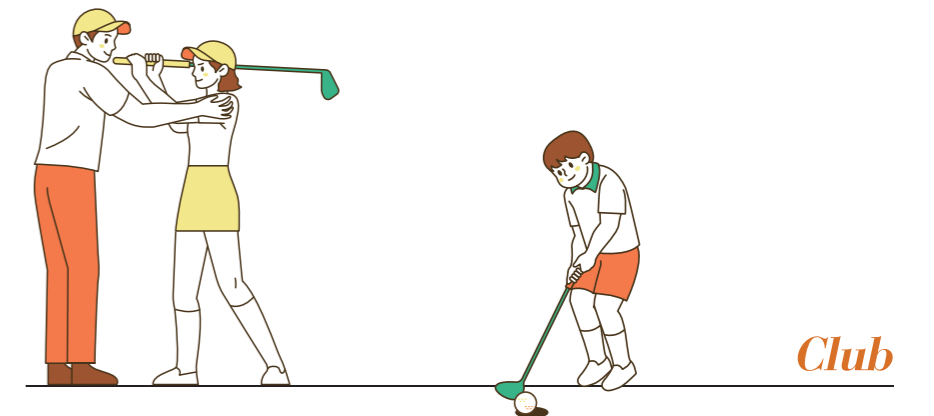
골프는 마음 맞는 사람들과 푸른 자연을 거닐며 공을 치는 모미가 크다. 전신 운동이 돼 건강을 챙기는 데 좋고 신사의 스포츠라고 불리는 만큼 함께 운동하는 상대에 대한 매너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사회성과 건강을 동시에 가꿀 수 있는 스포츠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골프는 '금녀(禁女)의 벽'이었다. 남자골프 4대 메이저 경기 중 하나인 마스터스 골프대회(Mastersgolf)가 열리는 미국 조지아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은 2012년이 돼서야 첫 여성 회원을 받아들였다.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류스 로열에이전트 골프장 앞에는 '개 또는 여성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260년 동안 붙어 있었다. 여성에게 배타적이었던 과거 때문인지 골프 어원과 관련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골프(Golf)를 'Gentlemen Only Ladies Forbidden(남성 전용, 여성 금지)'의 약자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잘못된 상식이다. 이제는 골프 문화도 변해 남성 골퍼와 여성 골퍼의 비율이 대등해졌다.

골프의 어원에 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클럽'의 옛말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이다. 골프가 문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1457년 3월 6일 에든버러에서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2세가 골프를 금한다는 포고령에서다.

사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표준화된 철자가 없었던 탓에 골프는 스코틀랜드 옛 문서에서 'Goff, Gowf, Golf, Goif, Goiff' 등 다양하게 사용됐다. 또한, 영국과 유럽에서는 'Golf, Colf, Kolf, Chole'라는 용어로 쓰였다. 이 단어들은 전근대 유럽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래 뭉치를 표현하는 클럽(Club)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역사가자가 유럽에서는 골프가 어떤 특정 경기를 지칭하지 않았으며 스코틀랜드만이 지금과 비슷한 방식의 골프 경기를 즐겼다고 분석한다.

골프는 수백 년에 걸쳐 변화를 거듭했다. 15세기 스코틀랜드 동부 지역 바닷가에서 시작된 골프의 초창기 모습은 황폐했다. 지역 특성상 흙과 모래로 뒤덮인 열악한 환경에서 경기를 진행해야 했다. 잔디가 깔린 지금의 모습으로 변한 것은 몇십 년 전이다.



# Club



**매끄러운 잔디 상태를 유지하는 그린**

그린(Green)은 파(Par)3의 짧은 홀(Hole, 200야드 안팎), 파4(400야드 안팎), 파5의 긴 홀(600야드 안팎)로 구성된다. 골퍼들의 최종 목적지이자 승부가 결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매끄러운 잔디 상태를 유지하는 핵심 지역이다. 그린의 기원은 골프 발상지인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다. 19세기 모래 언덕으로 이뤄진 링크스 코스(Links course)를 일부 골프장에서 그나마 잘 자란 푸른 잔디가 있는 곳을 골라 가꾼 뒤 그린으로 만들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도 흙으로 만든 그린 골프장을 운영한 사례가 있다. PGA(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US오픈 대회(United States Open Championship) 등을 개최하며 미국 골프의 고향으로 불리는 파인허스트(Pinehurst) 골프코스는 1935년까지 기름칠을 한 네모난 흙으로 이뤄진 그린을 운영했다. 파인허스트 골프코스의 변신은 프로골퍼이자 골프장 설계자인 도널드 로스(Donald Ross, 1872~1948)에 의해 이뤄졌다. 스코틀랜드 출신 도널드 로스는 미국으로 이주한 뒤 1900년부터 40년간 파인허스트 골프코스를 비롯해 400여 개의 코스를 설계한 골프계의 역사적 인물이다. 그는 흙그린을 잔디그린으로 바꾸며 골프 환경의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지금과 같은 모습의 그린인 등장한 뒤 그린은 골프 그 자체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Green**

**14개 클럽만 휴대 가능한 골프대회**

골프는 타수 계산, 홀 구성 등 숫자에 민감한 사안이 많아 이에 관해 정확히 알아야 실수가 없다. 많은 사안 중에서 아마추어 대회가 아닌 프로 골프대회에서는 14개 클럽만 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스트로크플레이(Stroke Play) 방식 대회에서 클럽이 14개가 초과되면 위반한 홀마다 2벌타, 한 라운드 최대 4벌타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종종 프로골퍼가 연습할 때 드라이버(Driver)를 1개 이상씩 갖고 있다가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채 경기에 참여해 벌타를 받는 경우도 있다.

클럽을 14개로 제한한 이유는 골프클럽 제조 기술과 관련이 있다. 나무 재질의 히코리 샤프트(Hickory Shaft)를 사용할 때는 제한이 없었으나 1929년 스틸 샤프트(Steel Shaft)가 개발되면서 제한의 필요성이 거론된 것이다. 더 많은 클럽을 구입할 수 있는 돈 많은 골퍼들이 경기에 유리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1936년 USGA(United States Golf Association)와 영국왕립골프협회(R&A, the Royal & Ancient golf club)는 14개 클럽 제한률을 채택했다. 물론 클럽이 많다고 스코어(Score)가 잘 나오는 것은 아니다. 프로 골퍼들은 친선 경기에서 웨지(Wedge) 하나에 드라이버, 아이언(Iron), 퍼터(Putter) 등을 사용해 70대의 스코어를 기록하기도 한다.

**Steel Shaft**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도록 거리두기 하는 갤러리**

골프는 경기를 관람하는 이들을 갤러리(Gallery)라는 단어로 지칭한다. 본래 갤러리는 화랑, 미술관을 뜻하지만 골프에서는 관중을 통틀어 부른다. 그 단어가 정확히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대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여겨 갤러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영국 산업혁명 시기만 해도 골프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당시 골프는 귀족 스포츠로 불리며 일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으로 여겼다. 관중도 많지 않아 드넓은 필드(Field) 한쪽에 서 있는 관중의 모습은 그림 속 하나의 점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골프대회가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갤러리가 로프(Rope)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한다. 누군가는 그 모습이 마치 미술관에서 관람객이 그림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감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선수들이 경기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신경 쓰는 관중의 모습에서 골프가 왜 매너의 스포츠로 불리는지 알 수 있다.

“ 선수들이 경기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신경 쓰는 관중의 모습에서 골프가 왜 매너의 스포츠로 불리는지 알 수 있다.”

**Gallery**

- 출처: 마니아리포트, 김학수, <스포츠박사 기자의 스포츠 용어 산책> 시리즈
- 2020. 05. 20. <골프에서 관중을 왜 '갤러리'라고 할까>
- 2020. 05. 29. <골프(golf)의 어원은 '클럽(club)'과 연관이 있다>
- 2020. 06. 05. <'그린(Green)'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 2020. 08. 01. <골프 클럽은 왜 '14개'만 사용해야 하나>





# 운동과 음식 조절로 심혈관계 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겨울나기 하세요!

찬바람이 살을 에는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기온의 급격한 변화에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는 등 우리 몸이 이상 증세를 겪기 때문.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살피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해나가자.



# Blood Vessel

## 각종 심혈관 합병증 가져오는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2위,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로 꼽힐 만큼 현대인들에게 흔한 질환이다.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등을 꼽을 수 있다. 그중 고혈압은 각종 심혈관 합병증을 가져오는 위험한 질환이지만 평소 뚜렷한 증상이 없어 혈압을 측정하기 전까지 질환을 인식하기 어렵다. 게다가 진단받았다고 해도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치료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오랫동안 고혈압이 계속되면 심부전, 심근경색증, 부정맥, 뇌출혈 등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관리가 필요하다.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은 수년 전만 해도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많이 나타났지만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젊은 층도 많이 겪게 됐다. 잦은 음주와 흡연, 자극적인 음식 섭취 등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금주, 금연하고 간이 너무 세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 등은 되도록 피하기를 권한다.

## 가슴 통증과 현기증은 심혈관계 질환의 전조

심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높은 질환으로 유전적 요인이나 술, 당뇨병과 같은 요인으로 생긴다. 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증)은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이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으로 인해 혈관 내 세포 증식이 일어나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질환이다. 혈관이 좁아지면 협심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심장에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 가슴이 조여 오는 듯한 통증을 겪는 것이다. 심장과 연결된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심근경색증 역시 환자 대부분이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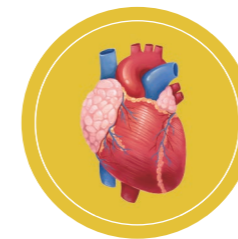
부정맥에 걸리면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전기적 신호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이어진다. 이 같은 증상이 심해지면 호흡 곤란, 현기증, 실신 등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심장 마비가 올 수 있다. 심장 마비는 급성 심근경색증, 협심증처럼 관상동맥에서 발생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일어난다. 관상동맥 관련 질환자의 사망 원인 50%가 심장마비임을 명심하고 철저히 관리해야겠다.

##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이 최선의 예방

지금까지 이야기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다. 비만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과잉을 불러오는 만큼 체중 조절에 항상 신경 써야 한다. 유독 배가 나왔거나 턱살이 이중으로 접힌다면 다이어트를 하는 편이 좋다. 주 3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저지방 식사를 하며 금연, 금주로 몸에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는 요인인 만큼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지나친 나트륨 섭취도 피해야 한다. 나트륨을 적게 먹는 것만으로도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푸른 생선을 즐겨 먹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식단을 구성하도록 한다.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다면 미세먼지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겠다. 또한 갑작스럽게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사우나와 찜질방은 가지 않는 편이 좋다. 무엇보다 전문의와 꾸준히 상담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치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2021년 11월호, 일상 건강학 '수시로 찾아오는 가슴통증,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인가요?'

## 2021 부산체육꿈나무 장학금 및 운동용품 전달식 성료



SPORTS NEWS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2월 9일(목) 부산광역시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초·중학교 운동부 및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2021 부산체육꿈나무 장학금 및 운동용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021년 연말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는 만큼 부산체육의 미래인 꿈나무 학생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게 준비했다.

부산도시가스 후원으로 총 8,000만 원 상당의 훈련용품을 초·중학교 운동부(클럽) 15개 팀 대상으로 지원하고, 우수선수 장학금은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선수 등 부산체육의 미래가 촉망되는 선수 150명에게 1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인화 회장이 취임한 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선수 저변 확대 및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확대 진행해왔다. 그 중 가장 뚜렷한 성과를 보인 장학금 지원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3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전달식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올해 학생선수들을 위해 지원하는 3억 원의 장학금 중 최고액인 1억 5,000만 원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학교운동부 훈련용품 지원을 위해 후원해주신 부산도시가스 구태고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부산광역시체육회 장학금 지원을 계기로 학생선수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육꿈나무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진행해 학생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 부산북부교육지원청 특수학급 스포츠페스티벌 개최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1월 23일(화), 12월 1일(토) 양일간 부산북부교육지원청과 연계해 관내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학교 16개교 특수학급 학생 및 교사(보조인력 포함) 7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스포츠 종목 체험' 위주로 진행됐다.

특수학급 스포츠 페스티벌은 뇌병변 등 심한장애인 종목인 '보치아', 전국장애인·장애학생체전 종목인 '술런',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종목인 '플라잉디스크', 뉴스포츠 어울림 종목인 '플로우컬링' 4종목으로 구성·운영하며,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종목별로 3~4명씩 배정해 진행했다. 번외 활동으로 '장애인스포츠 경연'을 통한 시상 등도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장애인스포츠 종목 체험 및 장애인 체육대회 예비선수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추진되었다. 11월 23일(화)은 오전, 오후로 나눠 2회 운영, 12월 1일(수)은 오전 1회로 참여 학교를 분산·배정했으며, 북구 구포동에 소재한 부산광역시학생에술평화회관 체육관에서 방역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신체활동 능력 강화 및 소통·공감을 위해 장애인스포츠 종목 체험, 경연 등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대상 맞춤형 체육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라고 했다.



### 2021 부산장애인체육 유공자 표창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2월 14일(화) 오후 3시 백스코에서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2021 부산장애인생활체육 발전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과 열악한 장애인체육시설 인프라 등 악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한 부산시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57개 장애인생활체육 등록 클럽 등 활성화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고 감사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시상식 참가 인원 50명 이내로 운영,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로 제한하고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과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시행했다.

시상식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전 유공 등 부산광역시 표창 10명,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유공 등 부산시장애인체육회장 표창 19명, 장애인카누 지원 유공으로 부산시카누연맹에 부산시장애인체육회장 감사패를 수여했다. 부산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0월 경북 구미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성적 5위를 거양했다.



\*본 페이지는 부산의 체육 관련학과 대학원의 교육을 시민 및 체육인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 세계를 향한 스포츠과학 전문가를 키우다 동의대학교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전공, 태권도학전공



체육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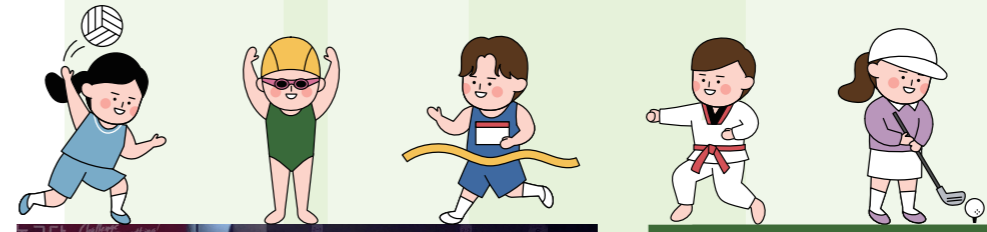
레저스포츠학전공

###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스포츠 인재 양성의 요람

- ◆ **학과안내** | 1981년에 설립되어 교수와 중등학교 교장 및 교사, 체육회 임원 및 지도자, 국가대표 선수를 다수 배출했으며 선·후배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재상은 전문지식을 갖춘 체육인, 미래체육을 선도하는 스포츠과학인재,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교원이다.
- ◆ **교육목표** | 실용적인 스포츠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 육성, 과학적 원리와 기능을 적용하는 스포츠과학자 양성, 전인교육을 완성하는 체육교원 양성이다.
- ◆ **교육과정** | 스포츠과학의 기초영역, 처방재활영역, 스포츠지도영역, 교육학영역 등 이론교과목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실기교과는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포츠종목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스포츠종목 등을 혼합하여 구성하고 있다. 체육시설로는 국제규격의 야구장과 축구장을 비롯해 실내체육관 1개,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스쿼시장, 웨이트트레이닝장, 펜싱장 등 최고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 ◆ **진로 및 취업** | 교수, 교사, 연구원, 프로팀 및 실업팀 선수, 체육회 행정 및 스포츠지도자, 선수트레이너(AT), 개인트레이너(PT), 스포츠 에이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취업이 가능하다. 취득 가능한 자격증으로는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이 있다.

### 세계화에 따른 21세기 신(New)레저문화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 ◆ **학과안내** | 현대사회에서 급증하는 레저스포츠문화의 수요에 맞춰 이론 및 실기능력을 갖춘 레저스포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DU(엘티미트동아리), S-master(스포츠경영동아리), Bubble Tsunami(스킨스쿠버동아리), LSP(축구동아리), LSSV(스포츠재활봉사동아리) 등 다양한 학과취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글로벌 레저스포츠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본과에 개설된 산업문화대학원에 스포츠산업학전공, 건강운동관리전문가전공 등의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보다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 ◆ **교육목표** | 전문적 지식과 실기능력을 갖춘 유능한 레저스포츠지도자(해양스포츠, 피트니스, 생활스포츠)를 양성하며, 정보사회를 앞서가는 레저스포츠산업전문가(레저스포츠경영, 레저스포츠관광) 등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교육과정** | 레저스포츠경영, 레저스포츠관광, 해양스포츠, 피트니스, 생활스포츠 등 5가지 트랙으로 특성화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이론교과목과 골프, 스키, 스킨스쿠버, 해양스포츠 실습, GX지도 실습,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실기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진로 및 취업** | 교수, 교사, 체육 관련 공기업, 스포츠 산업 및 관광 등 관련 기업, 스포츠 기획 및 마케팅 전문가, 스포츠 행정 관리자, 해양스포츠 전문지도사, 마린나 운영 관리자, 건강운동 관리자, 트레이너(선수, 퍼스널, 재활 등), 수영, 헬스, 구기 및 라켓 종목의 생활 스포츠 지도사 등이 있다.



태권도학전공

### 해외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로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 ◆ **학과안내** | 2006년 민족교육의 큰 뜻을 지닌 태권도 교육과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학사제도 운영과 입학부터 대학생활, 졸업 후까지 지도교수가 관리하는 지도교수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10여 개의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육네트워크를 활용해 어학, 해외도장탐방, 연수, 취업 등 외국어와 문화 경험 프로그램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학과 독자적으로 특별장학금제도(우수선수지원장학금, 해외탐방장학금, 생활자금 장학금 등)를 운영 중이다.
- ◆ **교육목표** | 태권도에 담긴 유·무형의 지식과 가치에 대한 인문, 자연 과학적 수행지식을 바탕으로 한 현장실무 지도 역량을 위한 '전문 인재', 특성화 교육과정과 퓨전태권도 문화공연팀을 통한 '감성체험', 창의설계에 의한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창의,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태권도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태권도 기반의 글로벌 교육콘텐츠 개발 선도를 위한 '융합인재' 상으로 설정했다.
- ◆ **교육과정** |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전공능력기반 교육과정에 맞춘 교과목 개발을 통해 태권도 융·복합 인재 양성에 부응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기관 및 산업체 연계를 통한 현장실습과 인턴제를 운영하고 우수한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활용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실기 위주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 **진로 및 취업** | 품새 및 겨루기 선수, 국내·외 태권도 관련 지도자, 체육관 창업, 트레이너, 전문 및 생활 스포츠지도사, 교사, 경찰, 군인, 보안 업체 등이 있다.

## 2022학년도 동의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안내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태권도학부 레저스포츠학전공  
레저스포츠태권도학부 태권도학전공

### 1.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1년 12월 30일(목) ~ 2022년 1월 3일(월) 18시까지
- 실기고사 | 2022년 1월 13일(목) 레저스포츠학전공, 태권도학전공  
2022년 1월 14일(금) 체육학과

### 2.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 비율

모집단위	전형	선발인원	수능	실기
체육학과	정시모집 <나>군 일반학생	13명	30% *최저학력 기준 없음	70%
레저스포츠태권도학부 레저스포츠학전공	정시모집 <가>군 일반학생	8명		
레저스포츠태권도학부 태권도학전공	정시모집 <가>군 일반학생	2명		

※최종 모집인원 확정 공고: 2021년 12월 29일(수)

### 3. 실기고사

모집단위	종목 및 배점
체육학과	제자리 멀리뛰기(24%) 메디신볼 던지기(23%) / Z-런(23%)
레저스포츠학전공	제자리 멀리뛰기(35%) / Z-런(35%)
태권도학전공	품새 / 시범 / 겨루기 중 택1(70%)

# 구·군체육회

## 중구체육회



### 2021년 제1차 중구체육회 인사위원회

중구체육회는 지난 11월 23일(화)에 광복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중구체육회 인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회장 1명, 위원 6명, 간사 1명, 지도자 1명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6조에 의거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안)과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안)을 원안 가결했다.

## 서구체육회



### 유튜브 통한 비대면 수업 및 지도영상 촬영

서구체육회 지도자들은 지난 11월 10일(수)과 11일(목) 양일간 오전 10시에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비대면 수업 및 지도영상을 촬영했다. 이번에 촬영한 유튜브 영상은 집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 하기 쉽고 체력증진에 유익한 수업으로 구성된 구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영도구체육회



### 제41회 영도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41회 영도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11월 14일(일) 영도마린축구장을 비롯한 20개 경기장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의거해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진행했다. 영도구가 주최하고 영도구체육회와 종목별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검도, 게이트볼, 당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등 14개 종목의 생활체육 동호인과 가족 2,200여 명이 참가해 서로의 기량을 겨뤘다.

## 부산진구체육회



### 2021년 장수체육대학 탁구 및 배드민턴 대회

지난 11월 부산진구체육회에서 '깊고 즐기고 운동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동행 프로젝트 '2021년 장수체육대학 탁구 및 배드민턴 대회'를 운영했다. 1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25일(목) 탁구 대회를 시작으로 11월 28일(일) 배드민턴 대회까지 실력을 갈고닦은 참여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즐기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 동래구체육회



### 2021년 동래구체육회 정기이사회 개최

지난 11월 23일(화)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체육회장, 부회장, 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동래구체육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장준용 체육회장 부산광역시 구·군체육회장협의회 회장 선출, 코로나19 상황 체육회 주요 추진사항 보고, 동래구체육회 사무국 이전에 따른 법인 주소 변경사항 등록, 동래구체육회 자체 상설 프로그램 전부 회원보험가입 추진, 동래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류 검토를 심의했다. 그리고 동래구 체육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 남구체육회



### 제12회 남구청장배 생활체육 동호인 야구대회

남구체육회는 지난 11월 20일(토), 21일(일) 양일간 백운포체육공원(야구장)에서 16개 팀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남구청장배 생활체육 동호인 야구대회를 개최했다. 경기 결과 1위는 맥스, 2위는 오륙도컵스, 공동 3위는 백운파이터즈, 코스모스 팀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진행돼 무사히 마무리됐다.

## 북구체육회



### 2021년 북구청장기 체육대회

지난 11월 14일(일) 화명생태공원에서 2021년 북구청장기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개최된 종목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족구, 축구, 파크골프이며 테니스 경기는 전날인 13일(토)에 진행됐다. 배구는 20일(토), 배드민턴은 28일(일)에 경기가 이뤄졌다. 2021 북구청장기 체육대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등 방역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진행됐다.

## 해운대구체육회



### 제2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파크골프협회장배대회

제2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파크골프협회장배대회가 지난 11월 11일(목) 대저생태공원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묵혀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다졌다. 경기 결과 남자부 1위 이한웅, 2위 진기수, 3위 최동찬, 여자부 1위 김정혜, 2위 김정옥, 3위 김만옥 선수가 수상했다.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대회였으며, 나아가 이번 대회를 발판으로 파크골프 종목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정구체육회



### 금정구체육회 제1차 인사위원회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11월 24일(수) 금정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금정구체육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위원 7명),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장 전달과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심의사항을 가결했고, 이후 금정구의 체육발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토의하는 등 위원회를 마무리했다.

## 강서구체육회



### 2021년 강서구청장배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

2021년 강서구청장배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가 지난 11월 28일(일) 명지다목적인조잔디운동장에서 체육회장,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펼쳐졌다. 8개 종목 52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했으며 클럽별로 친목을 다지고, 체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였다. 강서체육인의 자긍심 고취와 동호인클럽의 활성화, 구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대회 의의를 뒀으며 많은 이들의 협조 속에서 부상자 없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 연제구체육회



### 2021년 제3회 연제구청장기 축구대회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11월 28일(일) 부산아시아드 보조경기장과 환경공단축구장에서 110여 명의 동호인이 모인 가운데 제3회 연제구청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연제구축구협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쳐있던 동호인들의 피로감과 우울감을 떨쳐내고 화합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1위는 동성축구클럽, 2위는 부일축구클럽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선수상은 동성축구클럽 김현진 선수가, 우수선수상은 부일축구클럽에 김오기 선수가 수상했다.

국민체육센터

## 부산국민체육센터

### 01. 2021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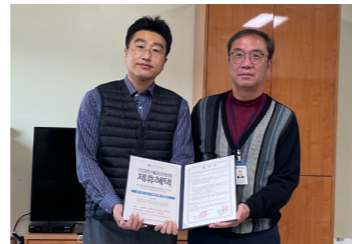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오는 12월 27일(월)부터 4주간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발육발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스트레스 해소 등을 통해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며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02. 2021 꿈나무체능단 산타행사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오는 12월 24일(금) 꿈나무체능단 단원들을 위한 산타행사를 실시한다. 산타 복장을 하고 단원들에게 핸드위시와 목도리를 선물로 나눠주며 사친촬영도 진행할 예정이다. 선물로 제공되는 색상이 바뀌는 핸드위시는 단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코로나19 시기의 개인위생 관리에 도움을 주며, 목도리는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03. '건강만세365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2월 3일(금)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에 위치한 관절·척추 전문병원 '건강만세365병원'과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부산국민체육센터 회원 및 직원의 의료복지 할인 혜택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 북구국민체육센터



### 01. 노후화된 헬스기구 교체

북구국민체육센터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지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헬스기구와 러닝머신 교체공사를 마쳤다. 특히 러닝머신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 독립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회원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헬스기구 관리 및 방역활동에 힘쓸 계획이다.



### 02. '희망근로지원사업' 공공근로자 방역소독 실시

북구국민체육센터는 부산광역시 북구청 일자리경제과와 연계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시적 공공일 자리를 제공했다.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방역사업에 참여할 희망근로지원사업 공공근로자 7명을 모집해 11월 한 달간 북구국민체육센터 전 시설 방역 및 소독작업 등을 수행했다.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지역민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운동생활 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영도국민체육센터



### 01. 2021년 학교로 찾아가는 초등 생존수영 교육 완료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지난 9월부터 진행된 학교로 찾아가는 생존수영 교육을 완료했다. 이번 교육은 부산광역시 내 8개 초등학교 3~5학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재난안전사고 및 수상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진행했다.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수상안전 의식과 습관, 안전사고 예방법 및 대처법을 배웠으며 학생들의 도전정신도 함양되었다. 2022년에는 더욱 전문적인 지도력을 개발해 학생들이 수상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02. 2021년 영도국민체육센터 회원만족도 조사 실시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1월 22일(월)부터 11월 30일(화)까지 2021년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에 대한 회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시설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프로그램 만족도 및 직원-지도자 만족도,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 등 27개의 문항이 포함됐다. 영도국민체육센터장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01. 2021년 강서구청장배 수영대회 개최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1월 26일(금) '2021년 강서구청장배 수영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 인원으로 진행됐다. 강서구 지역 수영동호회 4팀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부산실내빙상장



### 01.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 실시

부산실내빙상장은 지난 11월 19일(금)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북구경찰서와 함께 지난 11월 19일(금)부터 11월 25일(목)까지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은 부산실내빙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근절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 02. 부산광역시장배 아이스하키리그대회 개최

부산실내빙상장은 지난 11월 11일(목)부터 11월 14일(일)까지 제10회 부산광역시장배 아이스하키리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회원종목단체

## 부산광역시산악연맹

### 부산광역시산악연맹,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종합 1위

(사)대한산악연맹은 지난 11월 14일(일) 경북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제53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 경상북도산악연맹, 문경시산악연맹이 주관, 대한체육회·문경시·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 (주)콜핑이 협찬한 이번 대회는 남녀 고등부대학부·일반부·장년부 등 총 8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총 87팀 261명이 참가했다.

대회 평가는 3인 1조로 구성된 참가자들이 경기 구간을 이동하며, 운행 능력·산악 독도·등산 이론·응급처치·초암벽등반·매듭법·산악안전 등 등산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점검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부산광역시산악연맹은 5개 부문 11개 팀(33명)이 참가해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여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장 입장 전 문진표 작성, 발열체크 등 단계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대회 안전에 만전을 기했으며, 무관중 대회로 대한산악연맹과 문경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53회째 개최되고 있는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는 우리나라 산악 발전의 산실로서, 대한민국 산악강국의 면모를 뚜렷히 하는 산악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Hello, THE POLE

나는 당신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보고, 느끼고, 꿈꾸는  
당신 삶의 모든 순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화려함의 높이를 넘어  
인생의 깊이를 더해줄  
당신만의 공간으로

나는 우성종합건설의  
첫 프리미엄 브랜드  
'더폴'입니다

## THE POLE

부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 남구, 중구에서 우성종합건설의 '더폴'을 만나보세요!



BRONS 브론스 / 커피 파우치 음료

자연생각 / 아이스티 파우치 음료



| 아메리카노 블랙 | | 아메리카노 헤이즐넛향 | | 애플망고 | | 청포도 | | 복숭아 |



본사 / 50592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 7길 45 / TEL | 055-911-3000 / FAX | 055-912-1212 / www.heechang.com

지하150m 견운모 암반수

# “금천 게르마늄 헬시언샘물”

Nature Mineral Water



주문전화 | **1588-9256**

[www.healthyonwater.kr](http://www.healthyonwater.kr)

# 양방향 척추내시경!



## 당신의 척추·관절 질병과 싸워줄 박원욱병원!

척추 · 관절 · 뇌질환 · 스포츠의학 · 통증치료



### 개인별 스포츠의학 재활치료 시스템

**박원욱병원** | 진료 시간 월요일: 09:00 ~ 18:00, 화요일: 09:00 ~ 17:00, 토요일: 09:00 ~ 13:00 | 환수목금: 09:00 ~ 17:00, 점심시간: 12:30 ~ 13:30 | 진료 내용 척추·관절(정형외과, 신경외과)/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 | 병원 위치 지하철 2호선 광안역 5번 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 4) | 진료 문의 1544-7582, www.parkspine.co.kr, www.scoliosis.co.kr

E이로운 S세상을 G그리다  
BNK 금융그룹

나혼자 재택봉사를 한다

BNK 부산은행 베란다 콘서트

BNK 부산은행 플라스틱 일회용품 수거함

지구를 지키는 습관 Re:플라스틱

BNK 부산은행이 세상을 응원하는 방법

조금 달라진 세상, 서로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변화하는 내일을 향한 발걸음에 BNK부산은행이 먼저 찾아가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구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일에 앞장서며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은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언택트 릴레이 봉사, 리플 환경운동 등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